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www.ichicken.or.kr

HOT
ISSUE

보험만으로 폭염피해 해결할 수 있다

농가 폭염재해특약보험 가입을 주계약 대비 7.7%로 저조

33°C 이상 2일 지속시 폭염주의보

정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급년 폭염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2013년 가축관리 폭염 대책'을 발표하고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33°C 이상을 기록한 폭염일수가 부쩍 늘어나는 추세를 보고 있는데다 폭염에 대한 피해 보고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33°C 이상 기록한 날수가 14일로 5년 평균 3일에 비해 5배가 많은 수치이다.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각 T/F팀을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추진해 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9월에 일 최고기온이 33°C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가 32°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게 되며, 같은 월 일 최고기온이 35°C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가 41°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폭염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폭염피해 대책 상황관리반은 평상시 각 시도에 2명으로 구성하되 가축피해 발생시에는 '재해대책 상황실'로 확대 운영된다.

정부는 폭염대비 행동요령중 '폭염주의보' 발령시에는 축사에 우선 단열재를

부착하여 단열에 신경써줄 것과,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하고 선풍기나 팬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환기를 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계사 천정에는 물 분무장치를 설치하여 복사열을 방지토록 했다.

'폭염경보' 발령시는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비타민, 광물질을 섞은 사료를 급여하고, 신선한 사료를 공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가축폐사시는 신속하게 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폭염보험특약 관심 증가

폭염피해와 관련하여 농가에서는 가축재해보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처음 '폭염재해보장'이 신설되면서 폭염특약보험에 농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폭염피해로 폐사가 난 닭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가금관련 농협재해보험의 경우 현재 보험은 풍·수해, 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가 주계약으로 되어있으며, 특약으로는 전기적장치위험담보, 협정보험가액, 잔존물처리비용에 폭염재해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다. 주계약의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의 95%까지 보상하며,

특약은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된다.

폭염특약은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30%, 농가는 20%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폭염재해보장 특약약관을 보면 폭염으로 인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폭염특보 발령전 24시간(1일)전부터 해제 후 24시간(1일)이내 폐사되는 보험목적에 한하여 보상하도록 되었다. 다만 폭염특보는 보험목적의 소재지에 내려진 해당 지역만 인정된다.

폭염에 대비한 보험가입 농가에 유리

폭염특보는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폭염이 예상될 때 내리는 것으로 앞에서 언급했던 폭염주의보와 폭염특보가 이에 해당하며 이런 상태에서 닭이 폐사할 경우 특약에 가입한 농가에 한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폭염으로 인하여 전기장치 또는 설비가 파괴 또는 변조되어 온도에 변화가 왔을 경우, 즉 기계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폐사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현재 가축보험 가입율을 보면 보험가입 대상 가축수수 대비 2012년 68.9%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83%가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시작된 폭염재해보험은 계약자 중 7.7%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홍보가 덜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폭염특약은 요율이 1.3%로 정부지원 등을 뺀 농가부담은 0.399%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별도의 계약없이 업체에서 산정한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보험가입시 현지확인 과정에서 계사의 단열상태 등 계사형태에 따라 요율이 달라질 수 있다. 농가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폐사액 가격의 95%까지 받을 수 있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폭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이러한 기상 상황에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하겠다.

특약보험에 대해 꼼꼼히 살펴 농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대한양계협회 정책기획부장 김동진

육계의 보험가액 산정기준

구분	해당주령	보험가액 산정방법
육용실용계병아리	생후 1주 미만	보험사고 발생날이 속한 1주일의 육용실용계 병아리 평균가격
육용실용계	생후 1주 이상	보험사고가 발생날이 속한 1주일의 원/kg 평균 가격에 사고 육계의 생체중량을 곱한 금액

닭고기 자조금 거출기준 및 납부절차

닭고기 자조금은 2009년 6월 1일부터 '축산자조금관리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양계농사육하고 있는 농가라면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닭고기 자조금은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쓰여져 농가들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닭고기 자조금 납부 현황은 소식지와 닭고기 자조금 홈페이지(www.ichicken.or.kr) 자조금 납부현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가출하

육계, 삼계, 토종닭, 육용종계 도계장으로 출하

거출금 징수 위탁

수납기관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작업장 (수납기관은 농가의 자조금 납부 의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법 제 19조제2항)

거출금 징수

수납기관 : (도계되는 전수에 대하여 도계장에 의무 징수)

농가직접납부

도계수를 기준으로 농가가 직접 자조금 납부, 자조금 송금 후 관리위원회로 연락 필수

거출금 송금

수납기관 또는 농가가 직접 관리위원회에 납부 (수납 익월 20일 까지)

고지서 발송

관리위원회에서 수납기관 (도계장)

[거출시작일]
2009년 6월 1일 도계물량부터

[수납기관]
전국 도계장 대표자

[거출금액]
육계 5원, 삼계 3원, 토종닭 10원, 육용종계 30원(수당)

[농가직접납부 계좌번호]
농협 301-0017-6070-01 (예금주 : 닭고기 자조금관리위원회)



|(사)춘천닭갈비협회 최시영 회장 |

- ▲ 강원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 춘천닭갈비 막국수축제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 ▲ 명동1번지 닭갈비 대표이사

(사)춘천닭갈비협회 최시영 회장이 춘천닭갈비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친하던 동생이 닭갈비 식당을 함께 해보자는 제의에서였다. 두 사람은 옆집보다 더 맛있는 닭갈비를 개발하기 위해 양파를 썰어 넣는 등 다양한 재료로 실험해 왔고 결국 그들만의 맛있는 양념을 선보이며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실제로 최시영 회장은 지금까지 춘천 명동거리 내 대표적인 춘천 닭갈비 식당인 '명동1번지'를 운영하고 있다.

춘천시는 하루 평균 닭 소비량만 10톤이 넘을 만큼, 전국에서 닭고기 소비가 가장 많은 고장이다. 춘천닭갈비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시영 회장은 2009년 즈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 춘천 닭갈비의 인기를 악용해 일부 닭고기 유통업자들이 닭갈비식당에 수입산(혹은 냉동육)을 공급하여 춘천닭갈비의 맛과 질을 떨어뜨려 식당 주인뿐만 아니라, 멀리서 닭갈비를 먹기 위해 식당을 찾은 고객에게도 피해를 준 것이다. 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최시영 회장은 (사)춘천닭갈비협회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사)춘천닭갈비협회는 100% 국내산 신선육만 사용하는 회원업소에 인증패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뷰

국내산 신선육 공급으로 춘천닭갈비의 명성과 소비자 권익보호에 힘쓸 것

국내 양계산업 발전위해 대한양계협회 '국산닭고기 인증제'를 도입추진 올해 '춘천 막국수·닭갈비 축제' 100만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

■ (사)춘천닭갈비협회가 설립된 계기와 주요활동이 궁금합니다.

(사)춘천닭갈비협회는 2009년 2월 29일 춘천닭갈비의 정통성을 수립하고 계승·발전시켜 닭갈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9년 8월부터는 신선육 닭고기유통을 시작해서 닭갈비의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 시내에는 약 350개의 닭갈비업소가 성업 중이며 이 중 150개 업소에 저희 협회의 신선한 국산닭고기를 공급해 양계농가들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춘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질 좋은 닭갈비를 제공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회의 주요활동은 먼저 협회 회원의 권익을 신장하는 것입니다.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홍보와 위생,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먹거리로 만들기 위해 유통체계를 표준화하고 회원업소에 공급하는 닭고기의 가격을 공개하는 등 업소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사)춘천닭갈비협회에서 회원사에게 제공하는 인증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춘천닭갈비협회가 창립되기 전에는 닭갈비 업소들이 일부 유통업자의 농간에 속아 수입산(혹은 냉동육)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오직 국내산 신선육을 공급해 업소와 고객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2009년 8월부터 유통부문을 설립했습니다. 저희 협회는 '청정계'와 계약한 국내 양계농가의 닭고기만을 받아 하루 만에 작업하고 공급하는 시스템을 완벽했습니다.

2012년 1월부터는 100% 국내산 신선육만을 사용하는 회원업소에 인증패를 걸어주는 활동을 진행하여, 수입산 닭고기가 춘천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13년 춘천 막국수·닭갈비 축제'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춘천닭갈비는 1960년대 말 한 허름한 선술집에서 시작했습니다. 당시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선술집 주인은 고기값이 비싸 손님들에게 돼지고기를 제공할 수 없게 되자 닭고기를 막걸리와 곁들여 손님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당시엔 하나의 궁여지책으로 제공하였던 닭갈비가 지금은 춘천을 대표하는 음식이 되었는데 점이 아이러니한 면도 있지만, 그 덕분에 지금은

국내 최대 단일음식 축제인 '춘천 닭갈비·막국수 축제'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춘천 닭갈비·막국수 축제'는 닭갈비와 막국수가 따로 축제를 개최하다가 이제는 통합하여 진행한 지 6회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짝수년에는 닭갈비·막국수 축제, 홀수년에는 막국수·닭갈비 축제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53만명의 방문객이 찾았고 올해는 약 90~100만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축제에 참여하는 닭갈비 업소들은 (사)춘천닭갈비협회 회원사로만 국한하지는 않고 춘천 시내 모든 닭갈비업소를 대상으로 하되, 춘천닭갈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증된 닭갈비 업소(3년 이하 및 신생업소는 배제)에게만 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6·25전쟁 이후 미군기지로 사용되었던 캠프페이지가 62년 만에 춘천 시민에게 개방된 뜻깊은 해에 캠프페이지에서 '춘천 막국수·닭갈비 축제'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곳은 춘천역에서 2~3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도 용이해 더욱 더 많은 방문객이 찾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춘천향토음식 전국요리 경연대회, 닭갈비 100인 무료시식회 등을 통해 닭고기 소비촉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앞으로 (사)춘천닭갈비협회 운영계획은 무엇인가요?

향토음식인 춘천닭갈비가 세계적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명품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진행이 더딘 상황이지만, 언젠가 함께 해보자는 의견이 모아진다면 충분히 춘천의 자랑인 춘천닭갈비가 명품음식을 넘어, 세계 속의 한류음식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현재 춘천닭갈비 업소에 닭고기를 공급하는 유통업체는 49개에 이릅니다. (사)춘천닭갈비협회는 국내산 신선육의 투명한 유통과정을 통해, 타 유통업체들도 국내산 신선육을 공급하게끔 유도해 나가며 춘천이 닭갈비고장으로서의 정통성과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사)춘천닭갈비협회는 (사)대한양계협회와 함께 국산닭고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MOU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양 협회 간에 MOU가 체결되면 저희 협회 회원업소에 (사)대한양계협회의 '국산닭고기 인증제'를 도입하여 국내 양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H O T
ISSUE

육계조합, 육계산업과 육계인의 신뢰 확보 위해 존립키로 결의

임시총회서, 체계 재정비하고 내부 결속 다지기로 다짐



육계조합은 육계인의 자존심과 신뢰가 걸린 만큼 앞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육계산업계의 롤 모델로 자리매김하려는 의지를 다졌다

대한육계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이홍재, 이하 육계조합)이 육계산업의 발전을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기로 했다.

육계조합은 지난 5월 27일 대전 만남웨딩홀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그간 육계조합 운영에서 부족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심기일전해서 육계조합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이홍재 조합장은 회의에 앞서 “오늘

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됐는데,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육계조합의 해체와 존립에 대한 저마다의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으면 여기서 육계조합을 해산하고 조합원들에게 출자금을 반환해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조합원들은 “육계조합의 존립문제는 단순히 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육계인의 자존심이자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육계조합의 목적이 육계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육계조합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종적으로 조합원들은 육계조합을 존속하되 체계를 재정비해 육계조합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육계조합이 몇몇 사람의 열정만으로는 다른 계열사들과 견줄 만큼 발전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다함께 격려하며 육계조합에 힘을 불어넣어 주자고 다짐했다.

이에 이홍재 조합장은 “대의원들과 조합원들이 육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육계인의 자존심 문제가 걸린 육계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조합 이상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조합을 재정비하고 하루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은 “계열화사업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며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해법이 육계조합에 있다”고 주장하며, “육계조합과 양계협회가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하며 육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육계조합이 계열사나 육계농가의 롤 모델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경연, 1~4월 닭고기 소비 패턴 분석

닭고기 구매량 감소 및 부분육 소비편중 현상 심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국내 최대 규모의 소비자패널전문 마케팅 리서치 기업인 ‘칸타월드패널코리아’의 자료를 인용해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닭고기 소비 패턴’을 분석했다.

농경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평균 닭고기 구매량은 작년 동기간 1.68kg보다 6.1% 감소한 1.58kg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경연은 4월 중순 평균 닭고기 구매량이 작년 1.76kg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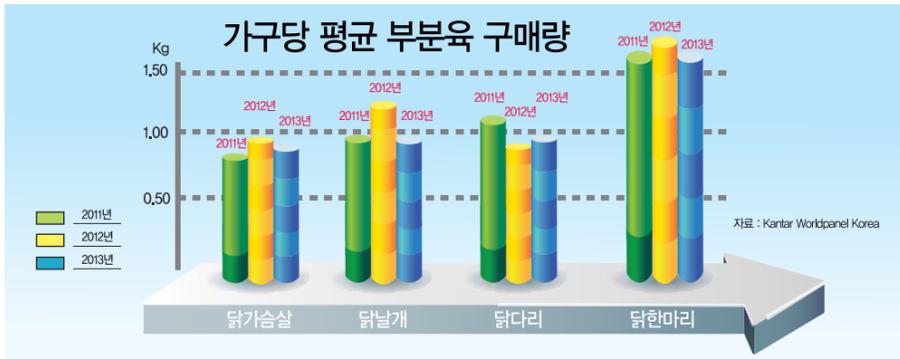
올해 1.54kg으로 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경연은 1~4월 닭다리를 제외한 부분육의 구매량 감소세가 뚜렷했으며, 특히 닭날개 구매량이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농경연은 닭날개 구매량이 작년 동기간 1.20kg보다 21.7% 감소한 0.94kg이며, 닭가슴살 구매량이 작년 동기간 0.94kg보다 9.9% 감소한 0.84kg이며, 닭한마리 구매량이 작년 동기간 1.71kg보다 4.7% 감소한 1.63kg이지만, 닭다리 구매량

만 작년 동기간 0.90kg보다 7.3% 증가한 0.96kg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닭고기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소비편중 현상이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닭고기 요

리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조리법이 개발되어야 하며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분육에 대한 소비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지금 해외에선

경제적 피해액 170억 위안 전망, 관광·호텔·항공·요식업 등 피해 우려

중국 전역에서 6월 1일 현재 조류인플루엔자(H7N9형) 감염 사망자수는 38명으로 늘어났다. 감염자는 사망자 포함 총 131명이다. 현재 중국 보건당국은 AI 감염환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기온이 높아지면서 더 이상 AI가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AI 방지태세를 ‘응급’에서 ‘상시’체제로 전환하였다.

현 시점에서 AI 발병으로 인한 중국 산업계의 피해액을 분석해 봄으로써,

중국, AI 영향으로 닭고기가격 16위안에서 4위안으로 폭락

철저한 AI 방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코트라 글로벌윈도우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AI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이 약 170억 위안(약 3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과 2차 산업(식당 등)이 입은 피해규모이며, 4월 18일 기준으로 고급 닭고기가격이 kg당 16위안(약 2,800원)에서 4위안(약 720원)으로 폭락해 닭고기가격이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코트라 글로벌윈도우는 중국이 배

드민턴 셔틀콕의 주요 생산국이자 원료 수출국이지만, 중국 내 AI 발병으로 배드민턴 강국인 인도네시아는 중국산 셔틀콕 수입을 전면 금지한 상태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7.7%라는 기대치 이하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AI 추가가 확산은 경기 상승국면이던 2003년보다 경제성장률에 더욱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별로는 관광, 호텔, 항공, 요식업 등의 피해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의 AI 확산기간 동안 지역적 근접성으로 인해 철새들을 통한 AI 유입이 위협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국내 방역당국과 양계농가의 철저한 방역관리로 중국발 AI가 국내에 유입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AI가 발병되면 닭고기가격이 급락해 양계농가에 크나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AI에 대한 철저한 차단방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코트라 글로벌윈도우〉

H O T
ISSUE

0 0 3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시 대리참석 예외조항 신설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대리참석에 대한 관리철저 당부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시행으로 축산농가 및 축산차량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 조항이 신설되어 지난해부터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해당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사업체 대표와 실제 종사직원이 틀린 경우가 많아 대리참석에 대한 예외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에서는 축산관

련 종사자 교육에 있어 대리참석에 대한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축산법에 의한 교육 시 개인의 경우는 대리참석이 불가하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에만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 참석하여 교육이 수가 가능하다. 대리참석을 하는 경우 법 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교육은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를 경우 차량의 운전자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축산관련 차량 종사자 교육과정은 축산법규 및 가축방역, 축산차량 등록제 등이다.

대리인자격은 교육일 현재 국가·자치단체 또는 법인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어야 하며, 해당업무와 무

관한 직원(용역직·일용직 포함)은 대리인 자격이 없다.

농협중앙회에서는 교육운영기관에서 교육참석자에 대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공적 신분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관리감독 철저를 당부하였으며, 대리참석 대상자는 교육에 앞서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어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

사료구매자금 1.5조원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해소

농림부,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사육마리수 감축에 동참한 농가만 지원

정부는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료구매자금 1.5조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축산물 가격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일시적인 경영위기 해소를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1.3조원을 신규 지원하고 기존 사료직거래구매자금을 1,7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총 1.5조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사료직거래구매자금 1,700억원에서 추경으로 검토 중

인 300억원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에 사료직거래구매자금이 2,000억원으로 확정 발표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특별구매자금의 기준금리 4.7% 중 농업인 부담금리는 1.5%이며, 이번 지원을 통해 사료의 외상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되어 농가의 금리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자금지원이 공급과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가의 사육마리수 감축 노력을 전제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종계장의 경우 육용종계감축을 완료하고 (사)대한양계협회로부터 종계감축 확인서를 발급받은 농가에 한해 지원하고, 육용 실용계의 경우

사업신청 시 지원금액의 50%를 지원한 후, 사육마리수 유지 여부를 확인해 나머지 50%를 지원한다.

이번 사료구매자금 지원에 대한 신청은 지난 5월 31일까지 해당 시·군 축산 관련 부서에서 접수했으며, 향후 각 시도별로 신청인원수에 따라 유기적으로 농가들의 추가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단기 처방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적정마리수 유지 등 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농가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6월 29일부터 9일간 춘천닭갈비축제 개최

춘천시내서 닭갈비 품미 선보일 예정

국내 향토음식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 ‘춘천 닭갈비·막국수 축제’가 올해도 전국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낭만으로 만나는 막국수·닭갈비’를 슬로건으로 내건 ‘2013년 춘천 막국수·닭갈비 축제’는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9일간 춘천역 축제장과 시내 막국수, 닭갈비업소에서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성대하게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개최되었던 ‘2012년 춘천 닭갈비·막국수 축제’에서는 53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186억원이라는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창출하였다.

춘천닭갈비·막국수축제 관계자는 “올해는 축제장소가 시내권이면서 역세권에서 개최되는 만큼 90~100만명의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춘천의 대표음식인 닭갈비와 막국수가 전국 명품화는 물론 한식의 세계화를 앞당기는 새로운 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축제에는 100인분의 막국수·닭갈비 무료시식 행사와 막국수 빨리먹기, 제6회 춘천향토음식 전국 요리 경연대회, GBN 경춘선 가요제, 낭만불꽃쇼 등이 개최되어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작년에는 '100인분 춘천닭갈비 무료시식회'를 통해 방문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6월 닭고기 공급량 증가로 육계산지가격 1,600원/kg 이하 전망

농경연, 7~8월, 병아리 생산잠재력 상승으로 최악의 복경기 우려

6월 육계산지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한 1,600원/kg 이하로 전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6월 육계 관측정보를 통해, 6월 도계마릿수가 전년 대비 4.5% 증가한 7,724만 마리, 6월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14.6% 감소한 8,357톤으로 전망하고, 6월 닭고기 총 공급량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9,589만 마리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소비자 가구 조사 결과, 2013년 4월 중순까지 가구당 평균 닭고기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한 1.58kg으로 나타났고 4월 닭고기 구매량도 1.54kg으로 12.5% 감소했으며, 가정 내 소비가 전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6월 닭고기 수요는 약보합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

경연은 6월 도계마릿수 증가에 따라 닭고기 공급량이 증가하고 수요가 전년에 비해 약보합으로 예상되어, 6월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한 1,600원/kg 이하로 전망했다.

농경연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육용종계 입식 마릿수 감소로 병아리 생산잠재력이 둔화되었으나, 8월까지의 전년보다 높을 것을 추정했다. 이어 농경연은 6~7월 병아리 생산잠재력이 높고 신계군의 생산가담으로 종계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7~8월 도계마릿수는 전년보다 증가하여, 7월에는 최소 9,704만 마리 이상, 8월에는 7,342만 마리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7~8월 닭고기 수요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농경연은 7월 산지가격을 전년 대비 하락한 1,650원/kg 이하, 8월 산지가격을 전년 대비 하

병아리 생산잠재력 지수(2012년 5월 = 100)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6월	103.7	109.8	5.9
7월	101.0	104.8	3.9
8월	95.6	97.0	1.5
9월	96.5	93.9	-2.7
10월	93.2	92.4	-0.9
11월	102.1	100.4	-1.7

주: 2012년 종계 조기도태와 2013년 환우 등을 고려하여 재추정한 수치
[자료: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락한 1,800원/kg 이하로 전망했다.

또한 농경연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에는 육용종계 마릿수가 감소하여 병아리 생산잠재력 상승폭이 둔화하였으나, 이후 8월까지의 병아리 생산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올해 7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복날 경기는 복병아리 과잉생산으로 최악의 복경기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부탐방

모두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수평계열화 추구

파주육계지부, 사료 공동구매 시 자조금을 거출하는 방식 고수



파주육계지부 김명기 지부장

6월 5일 파주연천축협 내에 위치한 파주육계지부를 찾았다. 파주 지역은 근처 군기관이 위치한 지역 특성 상 군납을 시행 중인 농가가 많아 대부분 개인사육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19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파주육계지부는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월례회에 거의 100%의 참석율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월례회를 통해 김명기 지부장은 여름철 사양관리 철저 당부와 더불어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을 설명하였다. 김명기 지부장은 “자금지원은 단기적으로는 농가에 이득이지만 축산물 시세가 좋아지지 않는 한, 이를 갚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자금신청에 신중을 요구했다. 또한 빗만 늘어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경영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나 경쟁력이 저하되는 낙후된 축사시설은 정부에서 폐업보상액을 늘려 업종 전환이 용이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주육계지부에서는 개인농가가 많은 특성을 이용해 계약을 통한 공동납품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학교 단체급식을 위한 친환경 닭고기 납품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주요 골자는 농협사료를 공동구매하고, 농가는 친환경 인증을 공동으로 받아 학교 급식요건을 맞춘 후 닭고기를 생산해 컨설팅 업체에 납

품하면, 업체에서 브랜드화한 파주육계농가의 친환경 닭을 학교에 납품을 하는 방식이다. 사업에 참가한 3자가 모두 이익을 추구하고 공동의 책임을 지는 수평계열화를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가 좋은 시스템이지만 개인농가의 고충도 많다고 김명기 지부장은 전한다. 시세에 민감하고 출하처가 확보되지 않아 산지육계 유통상인들에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 개인농가도 계열사육농가도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한다.

파주육계지부는 사료를 공동구매하면서 자조금을 거출하고 있다. 출하처가 모두 달라서 사료구매 때 자조금을 거출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김명기 지부장은 “자조금을 통

해 각 지부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소비행사 지원 사업이 지속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오는 10월 파주시에서 개최되는 인삼축제에서 홍보활동을 계획 중에 있으며, 큰 지역축제인 만큼 소비촉진의 장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명기 지부장은 개인농가가 많은 지부의 특성을 살려 더욱 단합하고,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사)대한양계협회 정책기획부 대리 이남희



파주육계지부 월례회의



육계질병가이드 / 환절기의 IB발생과 계사상태

Q. 계사에 IB나 호흡기 질병이 생기고 계분이 질어지면 이후에 대장균증이 항상 문제가 되는 농장입니다. 어떻게 대비를 해야 좋을까요?

A. 바이러스성 질환이나 전염성 질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백신과 차단방역이 최우선이겠지요. 충분히 조치를 한 상태에서는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손실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더불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깔짚과 암모니아 관리인데요. 지금같이 날이 더워지는 상황보다는 환절기와 겨울철에 주로 고생을 하셨으리라 봅니다.

어떤 질병이 원인인던 깔짚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계분이 건조되지 않으면 가스가 발생합니다. 암모니아는 사람이 일단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수준이면 20ppm이상의 농도로 봅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닭의 호흡기에 손상을 주기 충분한데요, 이 정도 농도라면 당장 기도와 눈이 따가워지는 게 아니라 일주일 이상 계속 노출되었을 때 점막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이 정도 농도에서도 분무로 투약하는 ND나 IB백신이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백신 이후에 후유증이 심한 농장이라면 백신 전후 바닥상태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막에 손상이 오면 다시 마이코플라즈마, 대장균, IB 등 질병에 감염되기 쉬울 것이고, 또 계분이 질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손쉬운 대비책입니다.

계사가 질어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며 근본 원인은 일단 환기량이 부족하여 계사 내 수분이 배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스템이든지 계사 내 습도가 낮게 유지되면 암모니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암모니아는 공기보다 가벼워 위로 올라가지만 습도가 높아지면 습기에 녹아 닭 머리 높이에서도 자극을 계속 주게 됩니다.

현재도 일교차가 크고 이제 곧 장마철이 다가올텐데요. 환기관리를 적절히 유지하여 계사 내 암모니아농도를 컨트롤 하시기 바랍니다.

농가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책은 필드수의사와 상의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juyoon@bansuk.biz로 문의해 주세요.

(제공 : 반석 가금진료 연구소)

체리부로, ‘델리퀸’ 통해 신선하고 맛 좋은 닭고기제품 선보여



(주)체리부로(회장 김인식)는 전국의 체리부로 육계 농장에서 생산된 신선한 닭고기를 주원료로 다양한 재료와 양념을 혼합하여 고객의 기호에 맞는 닭고기제품을 생산해 공급하고 있다. (주)체리부로는 매일 신선한 닭고기와 조리제품을 제공하는 ‘델리퀸’ 프랜차이즈 닭고기 매장을 통해, 가장 신선한 상태의 닭을 공장에서 식탁까지 One-stop으로 제공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책임지고 소비자에게 행복을 전

해주고 있다. ‘델리퀸’에서는 다양한 신선제품과 육가공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신선제품의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부화 후 32일간 사육된 최상급 닭고기를 에어칠링 시스템과 품질등급 자동분류시스템으로 가공하여 최고의 신선함을 자랑하는 ‘통닭’과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자라 쫄깃한 육질을 자랑하는 토종닭을 엄선하여 먹기 좋게 절단한 ‘산천 들닭 볶음탕용’이 있다. 가공제품으로는 신선한 닭고기 한 마리를 먹기 좋은 크기로 4등분하여 참나무 연기에 훈연한 정통스모크 ‘치킨스모크’와 양파숙성구이 소스에 재워 저온숙성 후 참나무로 훈연한 ‘양파치킨스모크’, 기름을 쏙 뺀 국내산 닭가슴살을 숙성하여 참나무로 훈연한 ‘닭가슴살 스모크’, 콜라겐 성분이 풍부한 닭날개를 후라이드하여 쫄깃하고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델리윙’, 신선한 닭고기안심을 원료로 바삭하게 튀겨낸 ‘텐더스틱’을 선보이고 있다.

단체소식 양계관련단체 업무추진 활동

축산관련 정부부처 인사발령



〈원장 취임(5월 30일)〉

최 세 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 동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 ▲ 동국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과 석사 ▲ 美 퍼듀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박사 ▲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집행위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연구실장, 글로벌협력연구본부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과장급 전보(5월 25일)〉

박 정 훈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방역관리과 과장

▲ 충북대학교 농학과 ▲ 충북대학교 대학원 농학석사 수료 ▲ 지방고시 6회 ▲ 군산시 총무과, 농업축산과, 공원녹지과 및 농정과장 ▲ 농림부 통상협력과, 지역무역협정과 ▲ 농림수산물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

(사)대한양계협회



ND/IB 혼합백신 의무접종 건의

병아리 1일령 ND와 IB 혼합백신 접종 지원요청

본회에서는 정부의 ND백신지원사업을 확대하여 ND/IB 혼합백신 지원 및 의무화를 도입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하였다. 정부에서는 ND 피해를 줄이고자 2001년 백신 의무접종정책을 실시하고 ND 방역실시요령을 고시하여 효과적인 ND질병 근절이 이루어져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ND의 발생보고가 없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발생율이 높아져 양계농가에서는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 지원으로 무상 공급되고 있는 ND백신이 IB백신과의 간섭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농가에서 IB백신의 사용

이 더욱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회에서는 IB를 예방함에 있어 백신접종을 1일령 부화장 분무백신을 의무화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조사에 근거해 부화장에서 1일령에 실시하고 있는 ND백신을 확대하여 ND와 IB(혼합백신)에 대한 의무접종을 정책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ND/IB 혼합백신 지원사업이 진행된다면 양계 질병감소와 그에 따른 생산비 절감효과는 물론 IB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항생제의 사용감소로 축산식품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산업 발전을 위한 농민·생산자 대토론회 개최



양계협 김동진 부장은 계분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을 꼬집고 계분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에서는 김재원·김영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주최로 “친환경 유기질비료 산업 발전을 위한 농민·생산자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본 토론회에는 본회 김동진 부장이 참석하여

본회, 김동진 부장 지정토론자로 계분 활성화 정책지원 강조

6월 5일 한국수출입은행본점 대강당

계분에 관한 제도적 문제를 꼬집고, 계분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동진 부장은 친환경 축산정책과 함

께 축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에는 유기질 비료에 사용되는 유박의 수입이 다량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적인 낭비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는 건계분 비료를 만들거나 생석회 안정화 반응 후 발표시키는 공법으로 비료를 만들고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비료가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친환경(유기) 농가에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고 전했다. 농가에서도 고질적인 문제인 계분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계분처리시설의 가격부담으로 인해 개인이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대부분의 비료 생산업체에서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건계분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계분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계분 성분의 우수성을 살려 비료성분 공정규격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금번 토론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김완수 과장의 ‘2013년 정부의 유기질 비료 정책방향’ 발표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강창용 선임연구원의 ‘유기질비료산업 발전방안’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김선일 이사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박상희 정책실장, 농협중앙회 신영호 비료팀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이대중 정책위원장, 농촌진흥청 장대수 농자재 산업과장,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최동근 사무총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친환경비료 및 유기질비료 산업의 현문제점과 다양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사)한국계육협회



닭고기 우수성 홍보



SBS '일요특선 다큐멘터리'에서 건강한 닭고기 주제로 방송

본회는 심장병, 뇌졸중에 좋은 닭고기의 효능을 알리고, 수입산보다 뛰어난 국내산 닭고기의 품질을 알리기 위해 지난 2일(일) SBS 일요특선 다큐멘터리 ‘건강한 육식, 닭고기 좋아하세요?’를 통해 방송 홍보를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세계 가금류 도시인 미국 조지아주 게인즈빌의 ‘닭고기 축제’ 현장을 생동감있게 보여줬다.

닭고기 축제가 열리는 미국 게인즈빌의 닭 농가 소득은 이 지역 농업 소득의 45%에 이르고 약 10만 여 명이 양계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미국 외에도 파키스탄, 중국 등 세계 각 지역에서 닭고기를 먹으며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있는 사례를 소개해 닭고기가 장수 음식으로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내 사례로는 암을 이겨낸 택시 운전기사의 건강 비결

로 닭고기를 꼽았고, 다이어트 비법으로 피로회복, 열량 보충에 좋은 닭가슴살을 먹는 청년의 이야기가 다뤄졌다.

끝으로, 신선한 닭을 고르는 요령도 소개했다. 닭의 무게, 색깔도 중요하지만 특히, ‘국내산 냉장닭’은 수입산 냉동닭보다 약 44% 더 신선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본회 정병학 회장은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공중파 다큐멘터리 방송을 통해 닭고기의 영양학적 효과와 함께 국내산 닭고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저렴한 가격과 고단백으로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점 덕분에 예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신선한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폭염대비 가축관리 철저 당부

각 회원사에 폭염피해 예방

최근 날씨가 점점 더워짐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부에서는 2013년도 폭염대비 가축관리 대책 및 폭염대응 표준 매뉴얼을 각 시도 및 단체에 시달함에 따라 이에 본회는 이 같은 내용을 각 회원사에

전달하고,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3년도 폭염대비 가축관리 대책' 및 '폭염대응 표준 매뉴얼'은 본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 홈페이지 : www.chicken.or.kr

(사)한국토종닭협회

KOREAN NATIVE CHICKEN ASSOCIATION
(사)한국토종닭협회

농가분과위원회 개최



분과위는 토종닭 시세 하락에 따른 산업원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협회는 지난 5월 13일 대전 유성 소재 만나에서 농가분과위원회의(위원장 신영성)를 개최했다. 분과위는 최근 토종닭 시세 하락에 따

른 산업 침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예년과 비교하면 생산량이 많지는 않지만 최근 장기간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과 타 축산물의 가격하락에 따른 토종닭 대체 소비 증가로 시세 하락의 원인을 꼽았다. 특히 지난 2월 말부터 입추량이 증가함에 따라 공급량도 쉽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자칫 잘못하면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에 분과위는 계열사를 통한 대형마트 행사, 농가의 계획 생산, 덤핑 판매 자제 등 업계 전반적인 요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신영성 농가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토종닭 산업은 매 위기 때마다 푹푹 멍쳐서 헤쳐 나왔다”고 하며 “농가와 관련 회원들의 소득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토종닭 산업 안정화를 위한 간담회 가져



토종닭협회는 토종닭 시장의 안정화 및 복경기 과잉공급에 대비하고자 간담회를 열었다

침체된 토종닭 산업의 안정화 방안과 수급 조절 모색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연수)는 지난 5월 2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협회 임원 및 계열사 사장단, 임원진 14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침체한 토종닭 산업의 안정화 방안과 수급조절에 관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김연수 회장의 환영사, 문정진 상임부회장의 참석자 소개에 이어 김현태 과장의 협회 주요 사업 소개, 토종닭 산업

현황 설명 후 참석자 전원이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 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속적인 토종닭 시장의 안정화를 구축하고 토종닭 산업의 최대 성수기인 복을 앞두고 토종닭

이 과잉공급 됨에 따라 전체적인 시장의 안정화를 찾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본 협회에서는 자조금을 지원하여 적체된 물량에 대한 냉동 비축/가공 처리 등을 통해 안정된 토종닭 시장 구축으로 국민에게 우수한 우리 토종닭고기를 공급하고, 토종닭 산업의 수급 조절로 농가 소득 보존에 기여하고 자조금 활용을 통한 활성화 및 안정화를 기대효과로 보고 있다.

2013년도 닭고기자조금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 총사업비 : 5,263백만원(자담 2,900백만원, 보조 2,363백만원)

(단위 : 천원)

계정(항)	내 용		2013년 (A)	변경(안) (B)	증/감 (B-A)	주관기관	비고	
	단위사업(목)	세부사업(세목)						
교육 및 정보제공	생산농가 자질향상	교육 및 정보 제공	775,000	825,000	증 50,000			
		양계농가 HACCP 교육비 지원		20,000	20,000	-	농협	
				50,000	50,000	-	양계협	
		전국양계인관련대회		100,000	100,000	-	계육협	
				45,000	45,000	-	토종협	
		전국 양계인 순회교육 및 토론회	10,000	10,000	-	토종협		
		정책개발 세미나	10,000	10,000	-	토종협		
	생산자 및 소비자 정보제공	축산물 전시행사	30,000	30,000	-	토종협		
		구구데이 페스티벌	60,000	60,000	-	농협		
		닭고기 요리홍보 및 강습회	20,000	20,000	-	농협		
		전국닭고기 요리경연대회	30,000	30,000	-	토종협		
		자조금소식지 발행	180,000	180,000	-	양계협		
		국산 닭고기 인증사업	90,000	90,000	-	토종협		
		인터넷정보제공	30,000	30,000	-	사무국		
		양계사진 공모전	15,000	15,000	-	토종협		
		올바른 닭고기 정보제공(지역별)	75,000	75,000	-	토종협		
		대의원활동 및 조직화교육	-	40,000	증 40,000	사무국		
자조금거출 활동 홍보	거출금 향상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부		10,000	10,000	-	사무국		

계정(항)	내 용		2013년 (A)	변경(안) (B)	증/감 (B-A)	주관기관	비고
	단위사업(목)	세부사업(세목)					
조사연구	조사연구 영역	조사연구	100,000	100,000	-		
		토종닭홍보 및 산업 발전방향 연구	30,000	30,000	-	토종협	
		토종닭고기 영양성 평가 및 홍보	20,000	20,000	-	토종협	
		현대화시설자금 사업비	50,000	50,000	-	사무국	
수급안정	수급안정 홍보	수급안정	3,310,000	3,310,000	-		
		육용실용계 수급예측 사업	80,000	80,000	-	양계협	
		토종닭 수급안정사업	30,000	30,000	-	토종협	
		종계감축을 통한 수급안정사업	200,000	200,000	-	토종협	
		종계감축을 통한 수급안정사업	3,000,000	3,000,000	-	계육/양계	
대의원선거	대의원선거	대의원선거	50,000	50,000	-		
		대의원선거	50,000	50,000	-	사무국	
소비홍보	광고	소비홍보	280,000	280,000	-		
		온/오프라인 닭고기 소비홍보	100,000	100,000	-	계육협	
		해외수출을 위한 소비홍보	120,000	120,000	-	토종협	
		해외수출을 위한 소비홍보	50,000	50,000	-	토종협	
		신문광고	10,000	10,000	-	사무국	
징수수수료			12,500	12,500	-	사무국	
운 영 비			198,500	198,500	-	사무국	
예 비 비			537,000	487,000	△50,000	사무국	
합 계			5,263,000	5,263,000	-		

Today's
맛 있는
닭고기 요리

닭 인삼 튀김

인삼은 껌통더위에 지친 원기를 회복하게 하고, 오장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S라인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닭가슴살과 원기회복 식품인 인삼을 함께 섭취한다면 올 여름 활력 넘치는 일상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 재 료** 닭가슴살 200g(밀간 - 맛소금, 흰 후추), 인삼(미삼, 종삼) 100g, 청고추 1개, 홍고추 1개, 식용유
- 튀 김 옷** 튀김가루 1컵, 찹쌀가루 4큰 술, 검은 깨 1큰 술, 물 1컵

- Cooking**
1. 닭가슴살은 물기를 닦아 채 썬 다음 흰 후추와 맛소금을 약간 뿌려 간을 한다.
 2. 인삼은 5cm 길이로 채 썰어 놓는다.
 3. 청고추와 홍고추는 씨를 털고 5cm 길이로 채 썬다.
 4. 그릇에 ①, ②, ③을 섞은 후 별도의 튀김가루 2큰 술을 뿌려준다.
 5. 튀김가루, 찹쌀가루, 검은 깨, 물을 섞어 튀김옷을 만든다.
 6. ④, ⑤를 가볍게 섞어 170℃의 끓는 식용유에 먹기 좋은 크기로 튀겨낸다.



〈제공 :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

퀴즈 날말맞추기

1		2		5
			4	
		3	6	
9	10			8
			7	
11				

◇ 가로풀이 ✨

1. 생각한 대로 튼튼하게 잘된 물건을 일컫는 말. 경기도 안성에서 유기가 잘 들어맞는다는 데서 유래함
2. 한꺼번에 겹치거나 거듭되는 고통
3. 기관이나 단체 따위를 새로 만들어 세움
4. 병아리가 인위적으로 부화할 수 있도록 부화 환경을 맞춰주는 기구
5. 급료가 없음
6. 세상에 겨울 만한 적수가 없음

◇ 세로풀이

1. 계사 내에 안개처럼 물을 분사시켜 고온 스트레스에 약한 닭의 더위를 식혀주는 방법
2.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
3. 물건이나 자재를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건물
4. 다른 것에 익숙하거나 의존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됨
5. 적은 수효로 많은 수효를 대적하지 못함
6. 커다란 공기주머니 안의 뜨거운 공기를 데워서 생기는 부력을 이용하여 하늘을 나는 비행기구
7. 비행기가 아래로 갑자기 빠른 속도로 내려감

49호 정답

산		하	고	무	내
이	행	기		은	
문		현	문	기	
	구	운	로		금
문	운		문	이	
능		문	유	로	



양 계 비법전수

수질 관리의 중요성과 개선 방법은 무엇인가요?

육계에게 공급되는 수원지의 물은 칼슘(Ca, 즉 경도), 염분과 초산염(질산염) 농도를 조사하여야 하며, 계군별 수원, 저수조 및 급수기로부터 시료를 채취하여 세균수를 검사하여야 한다. 우물물에서는 시비한 논밭에서 빗물이 흘러들어 초산염 농도나 세균수가 높아져 종종 허용범위를 넘기도 하며, 세균수가 많은 곳에서는 원인을 규명하여 적합한 대책을 세우

지 않으면 안 된다. 세균이 포함된 물은 닭이 물을 먹기 전에 1~3ppm 범위의 염소를 함유하도록 처리하면 효과가 있으며, 자외선 조사는 세균오염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물속에 함유된 칼슘의 수준(경도)이 높거나, 철분 농도가 높으면(3mg/l) 급수기의 밸브나 파이프가 막힐 수도 있다. 침전물 또한 파이프를 막히게 하는 원인이 되는데, 이것은

40~50µm의 필터로 여과하면 된다. 세척제 등을 사용하여 주기적인 급수라인 청소를 해주어 급수관 내 세균오염과 바이오필름 형성을 예방하도록 한다. 또한 최소 1년에 한 번은 수질검사를 통해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주시도록 한다.

〈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닭기르기 100문100답'〉

AI 차단방역 철저

시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차단방역과 주기적 소독 필수

농장주, 관리인 등 농장근무자

- ⇒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출입자를 철저하게 통제
- ⇒ 계사출입시 발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생활화
- ⇒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 가축시장, 부화장, 집하장, 도계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등의 방문 자제
- ⇒ AI발생국 여행 자제(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철저한 소독 및 교육 실시
- ⇒ 살충 및 구서(쥐잡기) 실시

방문자 등 외부인

- ⇒ 농장출입구에 '방역상 출입금지' 안내문 부착
- ⇒ 발판소독조, 분무소독시설 설치, 운영
- ⇒ 외국인의 가금류농가 출입제한
- ⇒ 동물약품·사료·채혈요원 등 방문자의 사전 약속 및 청결한 의복·신발 착용
- ⇒ 계사 출입 시 깨끗한 방역복·장화를 착용하고 출입문에서 장화 침지 소독

출입차량

⇒ 모든 차량은 농장 출입구에서 세척 및 소독 실시

주의심축 신고전화(1588-4060)